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843>

JCCT 2023-11-100

## 영아(18-24개월)의 언어발달능력 지표에 관한 조사 연구

### A Study on the Indicators of Language Development Ability in Infants 18-24 Months

황경숙\* 김화수\*\* 이지우\*\*\*

Kyung-sook Hwang\* Wha-Soo Kim\*\* Ji-Woo Lee\*\*\*

**요약** 본 연구는 언어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18-24개월 시기의 영아의 발달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빠른 시기에 적절한 중재 설계를 촉진 시킬 수 있는 발달 평가의 새로운 기준 마련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18-24개월 영아의 언어발달 능력 지표를 알 수 있는 선별검사, 표준화된 검사도구 등의 하위 항목들을 구문/음운, 의미, 화용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문항들을 분류하고 5점 척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18-24개월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언어 지연이 있는 영아 선별에 낮은 민감도, 국내 검사도구들이 표준화 된지 최소 6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으로 또래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발달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부모 또는 교사의 보고가 많은 실정이다. 연구 결과에서도 수용 및 표현 관련 설문 문항에서 '항상 가능하다.'와 '하기 시작했다.'의 비율이 50~60% 이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기에 세부적으로 적절한 중재 설계를 촉진 시킬 수 있는 발달 평가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 발달 및 언어 지연이 있는 영아의 선별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영아, 언어발달, 검사도구, 표준화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in detail the development of infants in the 18-24-month period when language develops the most, and to prepare new standards for developmental evaluation that can promote appropriate intervention design at an early time. We divided sub-items such as screening tests and standardized test tools to know the language development ability indicators of infants aged 18-24 months were divided into syntax/phonology, meaning, and speech, and each question was classified and a checklist was made on a five-point scale to conduct a survey on parents with infants aged 18-24 months. Low sensitivity to screening of infants with language delays in nationally implemented infant health checkups, and domestic test tools are standardized for at least six to as many as 10 years, which is always possible in questionnaires related to acceptance and expression, with many reports from parents or teachers. The proportion of "wow" and "started to do" was more than 50-60%.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hoped that new standards for developmental evaluation will be developed to promote the design of appropriate interventions in detail at a short time.

**Key words** : Infants, Language Development, Testing Tools, Standardized

\*정회원, 대구대학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박사과정 (제1저Received: October 6, 2023 / Revised: October 23, 2023  
자) Accepted: November 10, 2023

\*\*\*정회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겸임교수 (공동저자)

\*\*Corresponding Author: whasoolang@hanmail.net

\*\*정회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교신저자)

Dep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Daegu Univ, Korea

접수일: 2023년 10월 6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3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0일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아와 유아의 단어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특히 12개월~24개월 사이의 시기를 영아로 구분하기도 하고, 유아로 구분하기도 한다.

국어사전에 영아는 신생아기의 계속으로서 ‘출생 후 2년까지,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자라나는 시기’로 설명되어 있고, 유아는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아이’로 표기되어 있으나 「영유아 보육법」의 세부적인 기록에 따르면 영아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만 2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유효순, 2014)[1].

영유아기는 전생애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모든 발달의 기초가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신체, 사회 및 정서, 의사소통, 인지와 같은 전반적인 영역끼리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달하기 시작한다(이윤경, 2011)[2]. 특히, 영유아기는 의도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사용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의사소통자로 발전해 나간다.

언어 이전기의 의도가 있는 의사소통은 언어의 습득을 도와주고, 상대방에게 의도와 목적을 전달하고자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사용한다(Hoff, 2017)[3]. 이러한 의도적 의사소통을 띠는 행동은 언어발달의 토대가 되고, 점차 언어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여겨지면서 다양한 연구에서 신뢰할만한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오승아&이윤경, 2016)[4].

Paavola, Kunnari, & Moilanen(2005)의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기 의사소통은 언어이전기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연속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며, 이 시기의 의사소통 발달이 이후 언어발달을 예측해준다고 보고하였고, 이미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영유아의 의사소통 특성(ex. 발성, 체스처 등)이 이후 언어발달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중요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Hoff, 2017; Brady, marquis, Fleming, & McLean, 2004; Calandrella & Wilcox, 2000; McCathren, Yodder, & Warren, 1998)[5-8].

영유아 시기에는 언어의 발달이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16개월경이 되면 모든 단어의 약 25% 정도를 명료하게 발음하게 되고, 부정문을 사용하며, 언어적 주고

받기를 하는 등의 언어발달이 일어난다. 18개월경 일반적으로 50단어 이상을 표현하고, 두 단어를 조합하여 발화하기 시작하면서 어휘폭발기를 맞이하게 된다. 24개월 전후로 300여개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조성연 외, 2006) 서투르지만 문법이나 규칙에 맞는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도 증가한다(김나영 외, 2005)[9, 10].

이렇게 급격히 발달되는 영유아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각 월령에 따라 달라지는 전반적 발달 특성에 대해 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영아 관련 연구는 주로 보육,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편중되어있다고 보고되어 있다(김현 외, 2008)[11]. 언어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의 언어획득에 있어서 개인차를 초래하는 것이 언어적 경험이라고 하였고(조수진, 2013), 이는 영아기의 언어는 많은 요인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언어장애를 일으킬만한 요인이 있는 영유아들은 추적 관찰 또는 평가를 통하여 언어발달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거나 초기 치료 개입을 통해 언어장애를 예방해야 한다(신명선, 2008)[12, 13].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시기별로 검사도구에 의한 발달평가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진단검사가 아닌 선별검사의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언어지연이 있는 영아들을 선별하는데 낮은 민감도를 보인다고 한다(이희선, 2006)[14].

영아의 언어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 검사에는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김영태, 성태제, 이윤경, 2003), 문장 이해력 검사(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1994), 아동발달검사(K-CDI, 2010)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검사들은 대체적으로 3세 이상의 유아들이 하기에 적합한 검사도구로 결정적 시기인 2세 전후 영유아의 언어발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다.

비교적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김영태, 김경희, 윤해린, 김화수, 2003)가 36개월 이전의 영유아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외 영유아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검사(K-SNAP, 2007), K M-B CDI 등이 있으나 각각의 검사도구들이 표준화된지 최소 6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질적인 제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로(이주현, 2020) 검사결과 정상발달로 평가되더라도 보육 및 교육 시설에서 또래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발달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부모 또는 교사의 보고가 많은 실정이다[15].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언어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18-24개월 시기의 영아의 발달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빠른 시기에 적절한 중재 설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발달 평가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영아기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형식, 내용, 사용이다(Bloom & Lahey, 1978; 이승복, 이희란 역; 2006에서 재인용)[16].

‘형식’에는 문법적 배열 즉 어순을 나타내는 통사론(syntax)과 특정한 형식에 맞게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시작과 끝을 조절하는 형태론(morphology), 조음 및 음운 능력을 나타내는 음운론(phonology)이 포함된다. ‘내용’은 의미론(semantic)을 뜻하고, ‘사용’은 화용론(pragmatics)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세부영역 별 발달능력에 관한 지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18-24개월 시기 영아의 발달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최근 경향에 맞는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18-24개월 영아의 구문/음운 특성은 어떠한가?
- 2) 18-24개월 영아의 의미 특성은 어떠한가?
- 3) 18-24개월 영아의 화용 특성은 어떠한가?
- 4) 18-24개월 영아의 성별에 따른 특성은 어떠한가?
- 5) 부모의 학력에 따른 영역별 발달 특성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18-24개월 영아의 언어발달 능력 지표를 알 수 있는 선별검사, 표준화된 검사도구 등의 하위 항목들을 구문/음운, 의미, 화용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문항들을 분류하고 5점 척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 1. 검사도구

- 1)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SELSI, 2003)
- 2) 취학전 아동의 수용 및 표현 언어발달 척도(PRES)
- 3) 포테이지 아동발달 체크표(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985)
- 4) 아동발달검사(K-CDI)
- 5) 한국판 맥아더-베이즈 의사소통발달 평가 기록지(K M-B CDI, 영아용/유아용)
- 6) 영유아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검사(K-SNAP)
- 7) 기능적 언어행동(Pragmatics) 검사표
- 8) 영아 선별 교육진단검사(DEP, 2008)
- 9) 한국 언어발달검사
- 10) 영아 발달 선별검사(K-IDI)
- 11)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K-DST)

### 2. 문항수정 및 제작

각 검사도구에 있는 문항을 바탕으로 구성하되, 설명이 모호한 문항은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이나 예시를 추가하였고, 문항을 매끄럽게 수정하는 작업도 수행되었다. 같은 의미를 묻는 중복되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예를들어 포테이지 아동발달 체크표의 ‘지시에 따라 적목 3개를 쌓는다’의 문항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을 이해하여 지시에 따라 적목(나무토막) 3개를 쌓을 수 있다.’라는 문항으로 설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한국언어발달검사의 ‘이름을 부르면 반응한다’라는 문항과 SELSI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한다.’ 처럼 같은 의미를 묻는 중복되는 문항은 하나를 삭제하였다.

### 3. 설문조사 실시

2022년 5월 1일~5월 8일까지 전국의 18-24개월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막내 자녀와 상관없이 18-24개월에 해당하는 자녀의 부모일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 참여 대상은 부 53명, 모 52명이며 해당 자녀는 남아 52

명과 여아 53명으로 선정되었다. 하위영역별 설문 문항 수는 표1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구문/음운 11문항, 의미 13문항, 화용 14문항으로 총 38문항이다. 각 문항별로 수용과 표현 문항이 나뉘어져 있다.

표 1. 영역별 설문문항  
Table 1. Questionnaire by area

|          | 수용문항 수 | 표현문항 수 | 합계 |
|----------|--------|--------|----|
| 구문/음운 특성 | 5      | 6      | 11 |
| 의미 특성    | 9      | 4      | 13 |
| 화용 특성    | 9      | 5      | 14 |
| 합계       | 23     | 15     | 38 |

### III. 연구결과

#### 1. 18-24개월 영아의 구문/음운 발달 특성

18-24개월 영아의 구문/음운 통합언어 발달특성은 표2에 보인바와 같이 ‘항상 가능하다’와 ‘하기 시작했다’의 비율이 53.06%이며, ‘가끔 가능하다’까지 합하였을 시 77.9%로 나타났다.

표 2. 구문/음운 발달 특성  
Table 2. Syntax/phonic development characteristic

| 목록         | 구문/음운 통합 |       |
|------------|----------|-------|
|            | n        | %     |
| 항상 가능하다.   | 302      | 26.14 |
| 하기 시작했다.   | 311      | 26.92 |
| 가끔 가능하다.   | 287      | 24.84 |
| 잘 안되는 편이다. | 176      | 15.23 |
| 전혀 못 한다.   | 79       | 6.83  |
| 총          | 1,155    | 100   |

#### 2. 18-24개월 영아의 통합언어 의미 특성

18-24개월 영아의 통합언어 의미 특성은 표3에 보이

는 바와 같이 ‘항상 가능하다’와 ‘하기 시작했다’의 비율이 55.44%이며, ‘가끔 가능하다’까지 합하였을 시 79.39%로 나타났다.

표 3. 의미 발달 특성  
Table 3. Semantic development characteristics

| 목록         | 의미 통합 |       |
|------------|-------|-------|
|            | n     | %     |
| 항상 가능하다.   | 420   | 30.76 |
| 하기 시작했다.   | 337   | 24.68 |
| 가끔 가능하다.   | 327   | 23.95 |
| 잘 안되는 편이다. | 199   | 14.57 |
| 전혀 못 한다.   | 82    | 6.00  |
| 총          | 1,365 | 100   |

#### 3. 18-24개월 영아의 통합언어 화용 특성

18-24개월 영아의 통합언어 화용 특성은 표4에 보이는바와 같이 ‘항상 가능하다’와 ‘하기 시작했다’의 비율이 57.74%이며, ‘가끔 가능하다’까지 합하였을 시 80.93%로 나타났다.

표 4. 화용 발달 특성  
Table 4. Social Development Characteristics

| 목록         | 화용 통합 |       |
|------------|-------|-------|
|            | n     | %     |
| 항상 가능하다.   | 539   | 36.66 |
| 하기 시작했다.   | 310   | 21.08 |
| 가끔 가능하다.   | 341   | 23.19 |
| 잘 안되는 편이다. | 190   | 12.92 |
| 전혀 못 한다.   | 90    | 6.12  |
| 총          | 1,470 | 100   |

#### 4. 18-24개월 영아의 성별에 따른 특성

영아의 성별에 따른 하위영역별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구문/음운 영역의 발달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구문/음운의 수용 영역에서는  $\chi^2=15.897$ ,

$p=0.531$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5$  성별에 따른 구문/음운 수용발달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나타났다. 표현 영역에서는  $x^2=23.797$ 로  $p=0.358$  따라서  $p<.50$  성별에 따른 구문/음운 표현 발달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의미 능력 발달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수용영역에서는  $x^2=26.804$ ,  $p=0.474$  따라서  $p<.50$  성별에 따른 의미 능력 수용 발달과 연관성이 있다. 표현 영역에서도  $x^2=15.740$ ,  $p=0.47$ 로 나타났으며,  $p<.5$ 보다 작으므로 성별에 따른 의미 표현 발달능력과 연관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화용 영역의 발달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수용영역에서는  $x^2=27.323$ ,  $p=0.50$ 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화용 수용발달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나타났으나, 표현 영역에서는  $x^2=17.534$ ,  $p=0.352$ 로 나타났으며,  $p<.5$ 보다 작으므로 성별에 따른 화용 표현 발달능력과 연관성이 있었다.

#### 5. 부모의 학력에 따른 발달 특성

학력에 따른 구문/음운 영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구문/음운의 수용에서는  $x^2=62.434$ ,  $p=0.668$ 로 나타났으며, 구문/음운의 표현에서는  $x^2=85.703$ ,  $p=0.549$ 로 나타났으므로 두 값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력에 따른 의미 영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의미 수용에서는  $x^2=82.207$ ,  $p=0.918$ 로 나타남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미 표현에서는  $x^2=64.496$ ,  $p=0.459$ 로 나타남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에 따른 화용 영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화용 수용에서는  $x^2=74.112$ ,  $p=0.998$ 로 나타났으며, 화용의 표현에서는  $x^2=53.115$ ,  $p=0.832$ 로 두 값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언어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18-24개월 시기 영아의 발달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18-24개월 영아의 언어발달 능력 지표를 알 수 있는 선별검사, 표준화된 검사도구 등의 하위 항목들을 구문/음운, 의미, 화용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문

항들을 분류하고 5점 척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각 검사도구에 있는 문항을 바탕으로 구성하되, 설명이 모호한 문장은 예시를 추가하거나 문장을 수정하는 작업도 수행되었다. 전국의 18-24개월에 해당하는 자녀의 부모 일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설문 참여 대상은 남아 52명과 여아 53명으로 선정되었다.

18-24개월의 영아의 구문/음운 영역 발달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항상 가능하다’와 ‘하기 시작했다’의 비율이 53.06%였으며, ‘가끔 가능하다’까지 합하였을 시 77.9%로 나타났다.

18-24개월 영아의 의미영역 발달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항상 가능하다’와 ‘하기 시작했다’의 비율이 55.44%였으며, ‘가끔 가능하다’까지 합하였을 시 79.39%로 나타났다.

18-24개월 영아의 화용 영역 발달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항상 가능하다’와 ‘하기 시작했다’의 비율이 57.74%였으며, ‘가끔 가능하다’까지 합하였을 시 80.93%로 나타났다.

18-24개월 영아의 성별에 따른 하위영역별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문/음운(수용) 영역과 화용(수용)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구문/음운(표현), 의미(수용), 의미(표현), 화용(표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8-24개월 영아 부모의 학력에 따른 하위영역별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문/음운(수용), 구문/음운(표현), 의미(수용), 화용(수용), 화용(표현)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미(표현)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거나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모와 교사들의 검사 의뢰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표준화된 평가도구들은 최소 6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이 되어 정상발달로 평가되더라도 보육 및 교육 시설에서 또래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발달수준의 격차가 크다’ 라는 부모 또는 교사의 보고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언어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18-24개월 시기의 영아의 발달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빠른 시기에 적절한 중재 설계를 추진시킬 수 있는 발달 평가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105명을 설문대상자로 모집하였으나, 인구 통계적 정보를 담은 더 광범위한 표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보호자의 보고에 의한 영아의 언어발달 지표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보호자에 따라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관용적으로 보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 작성 전 보고자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언어능력 선별검사 및 평가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고 개발되기를 바란다.

## References

- [1] H. S. Yoo, "Experience in Nature-Friendly Activities Impact on Language Development of 1 and 2 years class infant's" Domestic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cheon. 2014.
- [2] Y. K. Le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communication skills of infants and toddlers with language delay and cognitive, motor, and social development, *Speech and hearing research*, 16(1), 1–12, 2011.
- [3] Hoff, E, 『Language Development』. Translated by H. J. Lee & E. T. Kwon, Seoul: Park Haksa. 2017.
- [4] S. A. Oh & Y. K. Lee, The impact of preverbal intentional communicative behavior on language development in the first 24 months: A longitudinal study, *Korean Speech Therapy Association Academic Conference Proceedings*, 212–215, 2016.
- [5] Paavola, L., Kunnari, S., & Moilanen, Maternal responsiveness and infant intentional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the early communicative and linguistic development.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1(6), 727–735. 2005.
- [6] Brady, N. C., Marquis, J., Fleming, K., & McLean, L. Prelinguistic predictors of language growth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04.
- [7] Calandrella, A. M., & Wilcox, M. J. Predicting language outcomes for young prelinguistic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3(5), 1061–1071. 2000.
- [8] Yoder, P. J., Warren, S. F., & McCathren, R. B. Determining spoken language prognosis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7(4), 77–87, 1998.
- [9] S. Y. Jo, J. H. Lee, H. Y. Choen, M. K. Sim & J. H. Na,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Seoul: Shinjeong, 357. 2006.
- [10] N. Y. Kim & Y. S. Sin. The effect of self-teaching training on the math problem-solving ability and maintenance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Developmental disability research*, 9(1), 89–104. 2005.
- [11] H. Kim, M. Kim, H. H. Cha & H. K. Hong.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Internet fairy tale activities and picture fairy tale activities on children's language comprehension and language expression skills.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11(5), 251–268. 2006.
- [12] S. J. Jo, "Research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attachment and infant's language development." Doctoral thesis from Oriental Medicine University, Seoul. 2013.
- [13] M. S. Shin, Standardization research on infant language development tests and development of an Internet web-based evaluation system, *Speech therapy research*, 17(1), 27–44. 2008.
- [14] H. S. Lee, "Comparison of the language section of the Korean infant development test with the REEL test." Domestic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2006.
- [15] J. H. Lee,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Flow on Their Teacher-Child Interaction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2, pp.429–436, May 31, 2020.
- [16] S. B. Lee & H. R. Lee, Understanding lexical ambiguity in children with simple language impairment.,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1(1), 14–29. 2006.